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2007 한국대선 패널조사 연구

이현우 · 권혁용 공편

EAI 여론분석 시리즈 ④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지은이 이현우 · 권혁용 공편
발행자 이홍구
발행처 (재) 동아시아연구원
편 집 곽소희 · 신영환
디자인 김민주
표지 디자인 송성재
발행일 2008년 3월 25일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전화 02-2277-1683 (代)
팩스 02-2277-1684
홈페이지 www.eai.or.kr

등록 제2-3612호 (02.10.7)

값 17,000원
ISBN 89-92395-06-9 (93300)

EAI
동아시아연구원

머리말

17대 대통령선거는 이전의 한국선거와 차별적 의미를 지니고 치러졌다. 민주화 이후 지속되던 지역주의의 영향력과 성격의 변화, 15대 대통령선거 이후 지속되었던 이념갈등의 영향력 그리고 경제이슈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인들이 새로운 의미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책에서는 선거과정과 선거 이후 논의되었던 많은 주제들을 심층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거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투표여부에서부터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투표선택의 변화과정까지 17대 대선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은 동일한 응답자를 반복조사하는 패널조사panel study를 통해 단순한 일회성 설문조사와 달리 경험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6차례 실시된 패널자료는 응답자들이 어떻게 투표결정 과정에서 변화했는지를 제대로 관찰해 볼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설문조사방법인 패널조사의 특성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이번 2007대선패널조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관심을 있는 독자라면 EAI 여론분석 시리즈《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 · 31 지방선거》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선택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균열구조를 분석한 두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1장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주요 정치균열들을 살펴본 후 2007년 대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정치균열의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지난 대선에 이어 지역균열은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이념과 세대 균열 역시 약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장은 지역주의효과의 지속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2007년 대선에서는 지역주의가 외형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전의 지역주의가 출신지역을 토대로 지역 간의 정서적 · 역사적 대립과 적대감에 기초해 있었다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효과는 지역의 생활환경이나 개발 등의 합리적인 계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2부에는 정치참여와 미디어효과를 다룬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3장에서는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일수록,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심각했다고 인식한 유권자일수록 선거관심도가 높았으며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20대와 30대 젊은 세대들의 투표참여가 저조하였다는 점은 지적할 만한 일이다. 4장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미디어의 영향과 선거캠페인, 그리고 TV토론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텔레비전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매체보다 높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지 후보 선택을 위한 정보의존도에서도 신문이나 인터넷에 비해 텔레비전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넷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반면에, TV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기보다는 기존 인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3부는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논문들을 모았다. 5장은 2007년 대선에서 나타난 경제투표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유권자들이 경제성장과 양극화 완화 등의 경제적 이슈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경제적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한 유권자일수록 이명박 후보를 가장 적합한 선택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가정경제상황보다는 국가경제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투표선택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요한 것은 정당지지가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투표선택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6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나타난 전략투표와 진심투표의 양태를 분석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낮을 때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전략투표자의 비율은 이번 대선에서 약 11.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많은 수의 전략투표자들은 이회창 후보로부터 이명박 후보로의 지지전환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전략투표자의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장은 부동층 유권자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층 집단을 개념적으로 '비회귀성 부동층'과 '회귀성 부동층'으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정치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명박 후보의 경우 유사한 진영 내의 다른 후보인 이회창 후보로부터 온 표가 많았던 반면에, 정동영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각각 권영길, 이명박 후보로부터 온 표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부동층은 회귀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8장에서는 2007년 대선에서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인식하지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이념과 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한 원인으로, 첫째, 지역주의가 궁극적인 태도결정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며, 둘째, 노무현 정부의 경제관리 책임에 대한 평가가 진보층의 정당지지 이탈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정당일체감이 활성화되면서 이념-정당지지의 불일치 현상은 다소 감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9장은 당내 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과정에서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후보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이 유권

자의 중요한 선택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2007년 경선과정에서는 도덕성과 능력이라는 두 가지 개인적 자질이 부각되었고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후보자의 능력을 더 중요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공헌이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대통령선거에서도 자료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SBS의 선거방송 기획팀과 하남신 단장, 중앙일보의 김수길 편집인, 박보균 전 편집국장, 전영기 논설위원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소장이신 이내영 위원장님이 여러 집단이 함께한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조정역할을 해 주셨다는 것을 밝혀둔다.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신창운 여론조사 전문기자와 SBS 현경보 차장의 적극적 참여가 없었다면 이 자료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었다. 이 조사자료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리서치의 노익상 사장과 김춘석 부장 그리고 박종선 차장을 비롯한 실무진의 열정과 성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학자들의 논문이 하나의 책으로 발간되기까지 모든 것을 챙겨준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부소장과 곽소희 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동아시아연구원 식구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필자들은 이 책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 패널자료분석 연구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향후 이보다 더 중요하고 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 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필자들을 대신하여 이현우 · 권혁용

목차

제17대 대통령선거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 김춘석 · 박종선 17

제1부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치행태**

1 2007 대선, 그리고 정치균열의 진화 김민전 39

2 지역주의는 변화했을까 강원택 67

제2부 **미디어효과와 정치참여**

3 제17대 대선과 투표참여 서현진 97

4 제17대 대선의 선거캠페인과 미디어 효과 김성태 125

제3부 **투표결정요인**

5 2007년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경제투표 권혁용 151

6 진심투표와 전략투표 이현우 179

7 '부동층 집단' 의 세분화를 통한 부동층의 이해 진영재 207

8 진보는 왜 한나라당을 지지했나 이내영 · 정한울 229

9 경선과정과 경선에서의 후보 선택 유성진 257

표목차

제17대 대통령선거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

〈표1〉 패널조사의 단점에 따른 대응방안 / 19
〈표2〉 조사표본 및 표집오차(최초 설계안) / 22
〈표3〉 조사횟수 및 조사기간 / 23
〈표4〉 패널유지율 (전체) / 25
〈표5〉 패널유지율 (패널구축 유형별) / 26
〈표6〉 언론보도 일지 / 28~29
〈표7〉 언론보도 절차 / 30
〈표8〉 응답자 특성별 패널유지율 / 33~34

제1부

1장

〈표1〉 14~16대 대선의 지역별 득표율 (%) / 48
〈표2〉 16, 15대 대선의 세대별 득표율 (%) / 49
〈표3〉 16대 대선의 이념성향별 지지율 / 51
〈표4〉 17대 대선 도시규모별 득표율(%) / 53
〈표5〉 16, 17대 대통령선거 지역별및 수도권의 고향별 지지율(%) / 55
〈표6〉 16, 17대 대선 세대별 득표율 (%) / 57
〈표7〉 16, 17대 대선 이념별 득표율(%) / 58

2장

〈표1〉 지역별 득표율 (%) / 74
〈표2〉 유권자의 출신지별 지지 후보 비율(%) / 76
〈표3〉 출신 지역과 거주 지역을 동시에 고려한 후보자 선택 (%) / 79
〈표4〉 거주지별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 81
〈표5〉 출신 지역과 거주 지역을 고려한 중요한 선거 이슈 (%) / 84
〈표6〉 지역별 주관적 이념 평균의 비교 (%) / 87

〈표7〉 출신 지역과 거주 지역을 고려한 주관적 이념 평균(%) / 88
〈표8〉 출신 지역과 거주 지역을 고려한 정책적 입장 (%) / 90
〈표9〉 출신지에 따른 지역별 거주 인구 비율 (%) / 93

제2부

3장

〈표1〉 BBK 동영상의 영향(ANOVA) / 107
〈표2〉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 (T-test) / 108
〈표3〉 선거관심도와 적극적 투표의향 (반드시 투표, %) / 109
〈표4〉 선거관심 유무와 투표의향 비교 (T-test) / 110
〈표5〉 선거관심 유무와 투표여부 (T-test) / 111
〈표6〉 정치 불신과 투표여부(T-test) / 111
〈표7〉 후보 지지자별 투표의향 차이(ANOVA) / 114
〈표8〉 세대 차이 분석 (ANOVA) / 120

4장

〈표1〉 매체별 대통령 선거 관련 정보 이용 빈도 비교 (%) / 134
("거의 매일 이용했다"라고 응답한 비율)
〈표2〉 지지후보 선택을 위해 정보를 가장 많이얻은 매체 비교 (%) / 136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중심으로)
〈표3〉 지지후보 선택을 위해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은 매체 비교 (%) / 138
(투표여부, 선택후보자별, 이념성향을 중심으로)
〈표4〉 선거 캠페인 소구별 관심도 비교 (%) / 141
〈표5〉 후보자 TV토론 관심도에 관한 비교분석(%) / 142
〈표6〉 후보자 TV토론이 후보지지에 미친 영향 분석(%) / 144
(투표 여부를 중심으로)

제3부

5장

〈표1〉 중요한 이슈들의 분포: 차기정부 국정과제 / 156
〈표2〉 경제이슈, 노무현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그리고 이명박 후보 경제해결
능력 평가 / 162
〈표3〉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과 투표선택의 전환 / 163
〈표4〉 가정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투표선택 / 166
〈표5〉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투표선택 / 167
〈표6〉 경제이슈해결능력 평가와 투표선택(t-test) / 170
〈표7〉 정당지지와 가정경제상태 평가 / 172
〈표8〉 정당지지와 국가경제상태 평가 / 173
〈표9〉 정당지지와 경제이슈해결능력 평가(t-test) / 173
〈표10〉 정당지지와 투표선택/ 174

6장

〈표1〉 후보지지 변경사유 / 186
〈표2〉 차선후보를 택할 수 있는 응답자분포 / 188
〈표3〉 범주별 전략투표자의 후보지지분포(%) / 189
〈표4〉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전략투표자 비율 / 193
〈표5〉 투표유형에 따른 후보만족도 평균비교 (t-test) / 195
〈표6〉 투표유형에 따른 만족도 분포(%) / 196
〈표7〉 투표유형에 따른 정당지지분포(%) / 196
〈표8〉 전략투표자들의 후보선택 (5차, 6차 조사) / 199
〈표9〉 지지변경한 전략투표자들의 후보선호 / 201
〈부록〉 진심투표자들의 후보 선택 (5차, 6차 조사) / 205

7장

〈표1〉 패널조사에 나타난 부동층의 후보자 지지 성향 / 217
〈표2〉 새로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 223

8장

〈표1〉 15~17대 이념별 선호정당 / 236
〈표2〉 이념성향별 정당지지 패턴 비교 (1차 조사, 6차 조사) / 238
〈표3〉 정당이념평가 및 각 정당 지지자의 자기이념평가 2000년~2007년 비교 / 241

〈표4〉 이념-정당지지 유형별 정당이념평가 평균점수 비교 (ANOVA Test) / 242
〈표5〉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이념위치 평가: 이념-정당지지 유형별 분포(%) / 244
〈표6〉 진보층 세대 · 지역 · 학력별 정당지지 (%) / 246
〈표7〉 보수층 세대 · 지역 · 학력별 정당지지 (%) / 247
〈표8〉 합의이슈 및 이념이슈가 지지정당 선택에 미친 영향(%) / 250

9장
〈표1〉 한나라당 후보경선 결과, 8월20일 / 260
〈표2〉 통합신당 후보경선 결과, 10월 15일 / 265
〈표3〉 한나라당 경선후보 지지자들의 사회적 속성 (%) / 268
〈표4〉 정당지지로 본 한나라당 후보지지 변동(1차와 2차) / 269
〈표5〉 한나라당 경선과 자질검증과정이 경선후보 평가에 미친 영향 / 271
〈표6〉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선택변화 (%) / 273
〈표7〉 통합신당 경선후보 지지자들의 사회적 속성 (%) / 275
〈표8〉 정당지지로 본 통합신당 후보지지 변동, 1차와 2차 / 276
〈표9〉 손학규 후보 지지자들의 선택변화 (%) / 278

그림목차

제17대 대통령선거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

〈그림1〉 4차 · 5차 조사 간 후보별 유지 · 이탈 · 유입 비교 / 30~31
〈그림2〉 정몽준 · 김종필의 이명박 후보 지지 효과 / 31
〈그림3〉 심대평의 이회창 후보 지지 효과 / 31

제1부

1장

〈그림1〉 4대 민의원 선거결과 / 45
〈그림2〉 16, 17대 대선 세대별 득표율 / 57
〈그림3〉 16, 17대 대선 이념별 득표율 / 58
〈그림4〉 20, 30, 40대 성별 지지율 추이 / 60
〈그림5〉 이명박 당선인의 정책포지션 / 62

제2부

3장

〈그림1〉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변화 / 98
〈그림2〉 다른 나라의 투표율 하락 추세(%) / 101
〈그림3〉 세대별 적극적 투표 층의 비율 변화(%) / 116
〈그림4〉 적극적 투표 층에서 나타난 세대별 이명박 지지율 변화(%) / 118

제3부

5장

〈그림1〉 노무현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추이 / 159
〈그림2〉 경제이슈 해결능력에 대한 유권자 평가 / 161
〈그림3〉 경제투표연구의 하나의 논쟁축 / 165
〈그림4〉 경제해결능력 평가와 투표선택 / 170

6장

〈그림1〉 지지후보 변동이유 / 183
〈그림2〉 투표유형에 따른 투표의사 / 198

9장

〈그림1〉 한나라당 경선후보 지지요인 / 270
〈그림2〉 통합신당 경선후보 지지요인 / 276
〈그림3〉 한나라당 경선후보검증에 대한 평가 / 279
〈그림4〉 한나라당 경선후보검증에 대한 평가 / 280

제17대 대통령선거 패널조사의 방법과 운용

한국리서치 김춘석 · 박종선

SBS · 중앙일보 ·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의 4개 기관은 제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 나타난 유권자의 의식 및 태도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널조사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이들 4개 기관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동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선거 여론조사 사상 최초의 패널조사 실시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룬바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17대 대통령선거 패널조사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패널조사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제17대 대통령선거 패널조사를 공동 기획한 SBS · 중앙일보 ·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패널조사의 특성

패널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권자의 태도를 측정하고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방법(Yaffe 2003)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노동패널조사' 를 비롯, '청년패널조사' , '여성가족패널조사'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패널조사가 정부 주도하에 수행되고 있다. 패널조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패널조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시계열자료의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고비용 조사라는 문제로 인해 민간기관보다는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선거여론조사 분야에서는 고비용이라는 문제가 그동안 패널조사의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정 언론사 혹은,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패널조사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반복되는 조사과정에 패널들의 이탈이 늘어남으로써 발생하는 패널손실, 잦은 조사 빈도로 인해 응답자의 심리적 · 육체적 피로가 발생하고 거짓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이 증가하는 패널피로효과, 조사 참여과정에 패널들이 정치적 지식이나 관심이 높아져 일반국민과 다른 성향이나 태도를 갖게 되는 정치적 각성효과 등도 패널조사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17대 대선 패널조사팀의 대응방안

제17대 대통령선거 패널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SBS · 중앙일보 ·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의 4개 기관은 패널조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패널조사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6년의 경험을 살려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패널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3,503명이라는 대규모 패널을 초기에 구축함으로써 약 8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패널탈락에 대비하였다. 둘째, 전체의 절반수준인 49%의 패널을 무작위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추출하는 동시에 나머지 절반 정도(51%)를 상대적으로 패널유지율이 높은 한국리서치의 마스터샘플에서 추출함으로써 패널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국리서치의 마스터샘플은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사전에 표명한 11만 명 규모의 응답자 풀로서, 무작위추출을 통해 구축한 패널보다 패널유지율이 26%p 가량 더 높아 패널유지율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셋째, 매 조사 시점의 투표지지율 분포를 정확하게 추정해야 할 경우에는 손실된 패널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 조사결과에 성/연령/지역/학력의 네 개 변수를 전국 비율에 맞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석하였다.

동시에, 효율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였으며, 자동화된 전화조사 시스템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CATI 및 Auto-Dialing System 을 활용함으로써 패널피로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표1〉 패널조사의 단점에 따른 대응방안

	패널손실	패널오염	고비용
본 조사의 대안	· 대규모 패널을 초기 구축함으로써 패널 손실에 대비 · 샘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신규대체를 하지 않음 · 무작위 샘플과 마스터샘플 병용	· 효율적인 인센티브 제공 · 자동화된 전화조사 시스템 활용	· 언론/연구소/기업의 공동기획으로 비용 부담 최소화

조사를 위한 준비

SBS · 중앙일보 ·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는 패널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

기 위해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소장, 이내영 고려대 교수) 소속 선거연구전문가들과 SBS 현경보 여론조사 전문위원 · 중앙일보의 신창운 여론조사 전문위원,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부장 등으로 공동조사팀을 꾸려 2007년 1월부터 4개월에 걸쳐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다. 이들 네 개 기관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 달간 서울 · 부산 · 광주 · 충남 네 지역에서 2,400명 패널을 대상으로 네 차례, 전국단위 1,300명 패널을 대상으로 두 차례 패널여론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패널조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놓았기에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하였다.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로 삼았다.

조사지역

조사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

패널조사 표본은 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하였다. 표본할당을 위한 자료는 행정자치부 발행 2006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근거로 삼았으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할당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성별(남자 · 여자), 연령별(29세 이하 · 30대 · 40대 · 50대 이상) 교차 비율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였으며, 해당지역 모집단 학력분포를 추가적인 할당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전체 패널 3,503명 뿐 아니라, 한국리서치의 마스터샘플에서 추출한 1,800명과 무작위표본추출한 1,703명 각각에 대해서도 적용한 기준이다.

구체적인 표본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상대적으로 패널유지율이 높은 한국리서치의 마스터샘플에서 전체의 절반 수준인 1,800(51%)명의 패널을 추출하였다. 1,800명의 패널은 2006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근거로 삼았으며,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할당하였다.

2) 나머지 1,703명(49%)의 패널은 무작위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역시 2006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근거로 삼아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할당하였다.

이렇게 마스터샘플에서 추출한 패널과 무작위표본추출 패널 각각에 대해 별도로 할당한 것은 두 집단 간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한 응답결과의 왜곡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최종 분석자료는 할당표집의 기준이 된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교차 가중값에 전체 응답자 기준의 학력 가중값을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조사표본과 표집오차

패널조사 표본을 설계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최종 유효표본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둘째, 최소 패널유지율을 몇 %로 설정할 것인가? 셋째, 도중 탈락 후 참여자도 해당 차수의 유효표본으로 간주할 것인가?

대선패널조사는 최종적으로 2,100명의 유효표본을 유지한다는 목표 하에 최초 응답자 패널은 3,500명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 유효표본의 목표가 2,100명인 것은 전국단위의 분석 이외에 권역별 분석 시 과소표본으로 인한 분석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표본설계는 처음 구축한 응답자 패널의 60% 이상이 최종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며 도중에 한번이라도 불참한 패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목표치였다.

〈표2〉 조사표본 및 표집오차(최초 설계안)

구분	조사표본	표집오차
최초 구축 목표 패널	3,500명	±1.7%
최종 응답 목표 패널	2,100명	±2.1%

주. 이번 조사는 비확률표집인 할당추출을 하였기 때문에 표집오차를 구할 수 없으나, 무작위추출을 전제했을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를 산정하였음.

조사횟수 및 조사기간

조사횟수를 결정함에 있어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패널조사에 참여하는 과정에 조사 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답자의 편파bias는 최소화하되 패널유지율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둘째, 선거일정을 고려하고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조사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패널조사를 통해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인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현실적인 제약요건인 조사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제17대 대통령선거 패널조사는 2007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투표 전 5회와 투표 직후 1회 등 총 6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투표 전 5회 조사는 ■ 예비후보 등록 ■ 한나라당 후보 경선 ■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경선 ■ 후보자 등록 마감 ■ 여론조사 공표 금지 등을 전후로 실시하였다. 투표 직후 조사는 투표일 다음날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1차부터 3차 조사까지는 4일이 소요되었으며, 4차 조사는 3일, 5차 조사와 6차 조사는 2일이 소요되었다.

〈표3〉 조사횟수 및 조사기간

조사횟수	조사기간
6회 조사	· 1차 조사 : 2007. 4. 25 - 28 · 2차 조사 : 2007. 8. 10 - 13 · 3차 조사 : 2007. 10. 17 - 20 · 4차 조사 : 2007. 11. 25 - 27 · 5차 조사 : 2007. 12. 11 - 12 · 6차 조사 : 2007. 12. 20 - 21

조사방법

대통령선거 패널조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CATI 방법을 활용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는 자료수집과 처리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지만 일반 전화조사와 마찬가지로 면접원이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이 점에서 응답자는 일반 유선전화를 이용한 조사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의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는 조사 진행 시간, 응답자 접촉현황, 면접원별 조사 진행 상황 등과 관련한 사항이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에서 조사 진행 과정에서 조사 상황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조사 후 검증 등을 실증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는 응답자 재접촉 예약, 응답자 접촉횟수

지정, 패널 참여 거부횟수 등을 자동으로 축적되는 정량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패널 대상자 요건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조사로 가능한 패널조사에 특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

패널구축 및 패널관리

대통령선거 패널조사를 위한 패널 구축은 1차 조사와 함께 진행하였다. 면접원은 조사의 의의와 중요성 및 조사방법과 일정 등을 소개하고 패널참여를 요청하였다. 패널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관련 문항과 응답자특성 정보 이외에 패널의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은행 통장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였다. 집 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는 다음 차수부터 연락을 위한 목적으로 파악하였다. 집 전화를 이용하여 1차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핸드폰은 부수적인 연락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은행 통장 계좌번호는 조사 참여에 대한 사례금을 입금할 용도로 파악하였다.

패널조사는 패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의 성패와 관련이 깊은 패널유지율이 좌우된다. 패널관리 차원에서 다음 여덟 가지 방안을 활용하였다.

첫째, 패널 모집 과정에서 응답자에게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사가 국내 선거조사에서 두 번째로 시도되는 패널조사이며, 대통령선거를 위한 최초의 패널조사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둘째, 패널조사에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면접원과 패널 간의 친밀감 rapport 형성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차수마다 수퍼바이저와 면접원에게 응답자 응대와 관련한 교육을 반복하였다.

셋째, 패널이 조사일정을 예정할 수 있도록 조사를 마친 후 패널에게 다음 조사일정을 알려주었다.

넷째, 패널이 통화 중이나 부재 중일 경우 접촉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연결이 될 때까지 재접촉을 시도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접촉시도 횟수가 20회를 넘기도 하였다.

다섯째, 조사 참여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차수 당 2회까지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2회 연속거부를 한 경우 패널에서 탈락 처리하였다

여섯째, 패널이 조사 참여를 완곡하게 거부한 경우 차수 당 3회까지 재접촉을 시도하였으며, 3회 연속 거부를 한 경우 패널에서 탈락 처리하였다.

일곱째, 패널에게는 일정 수준의 사례비를 차수별 조사 종료 직후 패널의 은행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함으로써, 패널이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하였다.

패널유지율은 패널구축과 함께 패널조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원표본 유지율 60%를 목표로 하였다. 패널이 탈락하여도 표본을 대체하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선거 패널조사에서의 패널 유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패널유지율 (전체)

조사차수	조사표본	패널유지율
1차 조사	3,503명	-
2차 조사	2,911명	83.1%
3차 조사	2,524명	72.1%
4차 조사	2,382명	68.0%
5차 조사	2,208명	63.0%
6차 조사	2,111명	60.3%

약 8개월간 6차에 걸쳐 진행된 대통령선거 패널조사의 최종 패널유지율은 60.3%로 기획단계에서 목표로 삼은 60.0%를 달성할 수 있었다. 조사차수별로 패널탈락율을 비교해 보면,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가 17% 수준으로 가장 높은 패

널탈락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3차조사에서 원표본 대비 11%가 탈락하였다. 반면, 4차 조사 이후부터는 5%이내로 패널탈락율이 현저히 낮았다. 패널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차 조사나 3차 조사와 같이 패널조사 초반의 탈락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스터샘플에서 구축한 패널 1,800명과 무작위추출을 통해 구축한 패널 1,703명의 패널유지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기존의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에서 구축한 패널의 경우 최종 패널 유지율이 73% 수준인 반면,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축한 패널은 47%에 불과하였다. 특히,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축한 패널의 경우 1차 패널 탈락율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패널유지율 (패널구축 유형별)

조사차수	마스터샘플 구축 패널		무작위추출 구축 패널	
	명	%	명	%
1차	1,800	100.0	1,703	100.0
2차	1,650	91.7	1,261	74.0
3차	1,503	83.5	1,021	60.0
4차	1,449	80.5	933	54.8
5차	1,368	76.0	840	49.3
6차	1,313	72.9	798	46.9

패널유지율만을 볼 때, 마스터샘플을 통해서만 전체 패널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나, 마스터샘플이 조사 참여의향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응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선에서 타협이 불가피하였다.

다만, 2007년 대선에서 YTN과 한국리서치가 마스터샘플을 활용하여 실시한 '사전에 모집한 응답자 패널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출구조사' 결과가 어떠한 출구조사 결과보다 정확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마스터샘플을 이용하는 조사의 신뢰도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오차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엄밀한 조사 진행을 통해 극복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자료의 처리와 활용

수집된 자료는 1차적으로 한국리서치 자료처리팀에서 처리하여 연구부에 이관하였다. 연구부에서는 자료처리팀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SPSS 파일 형식으로 받아 데이터를 검증한 후 검증 결과를 자료처리팀으로 전달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기 전 최종 결과를 확정하였다.

데이터가 확정된 후 연구부에서 패널할당변인(지역별 · 성별 · 연령별)과 학력인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할당변인인 지역별 · 성별 · 연령별은 각각의 교차값을 기준으로, 학력은 전체값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가중치는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학력 가중치는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S_{ij} = \frac{P_{ij}}{N} \cdot n$$

$$W_{ij} = \frac{S_{ij}}{R_{ij}}$$

W_{ij} : ij번째 가중값
N :전체 유권자수
n :전체 유효표본수
P_{ij} : ij번째 유권자수
S_{ij} : ij번째 할당표본수
R_{ij} : ij번째 유효표본수

가중값은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교차 가중값과 학력 전체 가중값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부여하였으며, 최종 결과가 최초 할당값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가중값 부여 절차를 지속하였다.

한편, 한국리서치는 가중값을 부여한 최종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산출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첫째, 원자료raw data를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하였다. 둘째, 개별문항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등) 및 주요 분석문항과 교차한 결과표를 한글파일 및 인쇄물로 제출하였다.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널조사는 중앙일보와 SBS 등 신문사와 방송사가 참여한 조사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도 조사 직후 언론에 보도되었다.

〈표6〉 언론보도 일지

조사차수	보도일자 및 내용
6차 조사	[SBS 12월 23일 8시 뉴스] "이명박 정부 일 잘 할 것" 86%…막연한 기대? [SBS 12월 23일 8시 뉴스] 내년 총선도 "이명박 약발" 먹힐까?…"아마도" [중앙일보 12월 24일 1면] "이명박 정부 일 잘 할 것" 86% [중앙일보 12월 24일 3면] "대선조사 4.9 총선 적용하니 한나라당 185석"
5차 조사	[SBS 12월 14일 8시 뉴스] 흔들림 없는 1강 2강 체제, 골수지지층의 힘 [SBS 12월 14일 8시 뉴스] 유권자의 후보선택 "도덕성보다 능력" [중앙일보 12월 15일자 4면] 콘크리트 지지층 '합종연횡 영향 없다' 77% [중앙일보 12월 15일자 4면] 2위 싸움은 정동영 17% 이회창 12% [중앙일보 12월 15일자 4면] 선택 기준은 능력. 경력 52% 소속 정당 12% [중앙일보 12월 15일자 1면] 빅3 '지지층 충성도' 이명박 90% 정동영 83% 이회창 62%
4차 조사	[SBS 11월 28일 8시 뉴스] 대선표심 유동적, 10명 중 4명 지지후보 바꿨다 [중앙일보 11월 29일자 1면] 대선패널 4차 조사 [중앙일보 11월 29일자 8면] 1위 "골수"의 힘… 2위 "변수"의 덫
3차 조사	[SBS 10월 21일 8시 뉴스] 이명박 대세론 "굳건"…정동영 지지율 급상승 [SBS 10월 21일 8시 뉴스] 이명박후보 독주 계속…BBK 수사결과가 변수 [중앙일보 10월 22일자 1면] 이명박 54.2% 정동영 15.3% [중앙일보 10월 22일자 3면] 노 대통령 지지자들 33.7% 이명박 〉 25.9% 정동영 [중앙일보 10월 22일자 3면] BBK 의혹 사실일 때 이명박 지지층은 [중앙일보 10월 22일자 3면] 정동영 20% 언제 넘을까
2차 조사	[SBS 8월 15일 8시 뉴스] 한나라 경선 누가되든 절반은 한나라 안 찍어 [중앙일보 8월 16일자 1면] 한나라 경선서 '진 후보' 찍은 사람 절반은 대선 때 한나라 안 찍을 듯 [중앙일보 8월 16일자 4면] 4개월 사이 41%가 지지 후보 바꿨다
1차 조사	[SBS 라디오 5월 3일] 2007대선패널조사 1차 결과를 정리한다 [SBS 5월 3일 8시 뉴스] 지역구도 변화 · 여성후보 약진… "표심 바뀐다" [SBS 5월 2일 8시 뉴스] "1위 이명박-2위 박근혜" 지지도 순위 여전 [SBS 5월 2일 8시 뉴스] 범여권, 쉽지 않은 "반한나라당 연합" [SBS 보도] 패널조사란 무엇인가? [SBS 보도][전문가 분석] 범여권 대연합 "쉽지 않다" [SBS 보도][전문가 분석] 여성유권자 "여성 대통령 Yes!" [중앙일보 5월 3일자 3면] 2007 대선 "3대 속설" 안 통할 수 있다 [중앙일보 5월 3일자 3면] 반한나라 연합 뜨면 …지지층 넓으나 인물 없는 게 문제 [중앙일보 5월 3일자 3면] 패널 여론조사는 같은 유권자 3500명 6차례 조사, 경마식 여론조사보다 더 심층적

이러한 보도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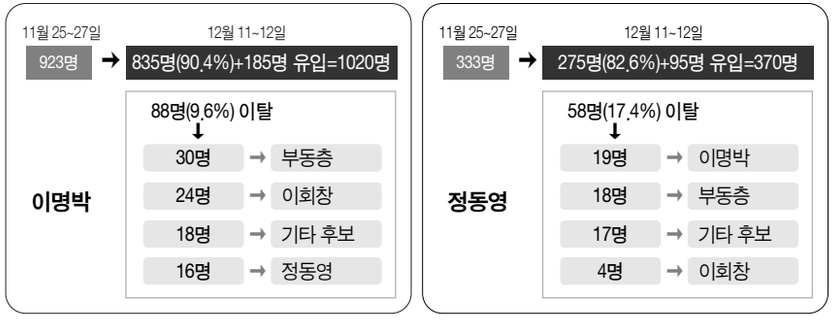
〈표7〉 언론보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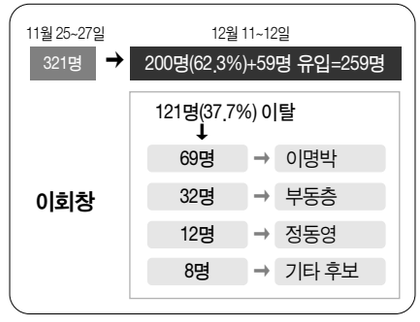
1	데이터 및 테이블제출	· 한국리서치는 자료수집 완료 후 12시간 이내에 EAI에 제출
2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 자료수집 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 · 분석방향 및 보도방향 협의
3	분석결과 제출	· EAI는 자료분석 결과를 보도시점 24시간 전에 각 언론사에 제출함
4	언론보도	· SBS보도를 우선으로 익일 중앙일보 보도 진행

언론보도에서는 패널조사의 장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선거패널조사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먼저, 후보지지의 변동추이를 심층 분석하였다. 후보별로 단순 지지도 변화 뿐 아니라, 단순 지지도 변화 내면에 숨어 있는 지지층이 이탈과 유입의 구체적인 비율까지 확인이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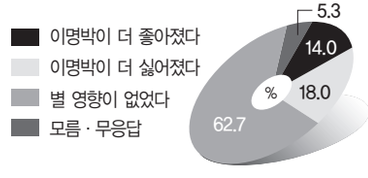
〈그림1〉 4차 · 5차 조사 간 후보별 유지 · 이탈 · 유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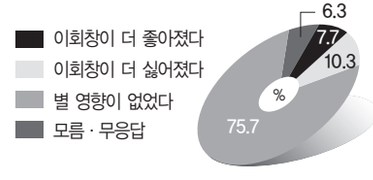


돌발이슈에 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역시 패널조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몽준과 김종필씨의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이나 심대평씨의 이회창 후보 지지 선언과 같은 돌발이슈가 발생하였으며, 관련 이슈가 유권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조사를 통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2〉
정몽준 · 김종필의 이명박 후보 지지 효과



〈그림3〉
심대평의 이회창 후보 지지 효과



제17대 대통령선거 패널조사의 한계

제17대 대통령선거 패널조사는 여전히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

벽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먼저 패널구축 시 참여의사가 높은 응답자만 모집됨으로써 나타나는 표집과정에서의 대표성 문제는 패널유지율 문제와 연계되어 적정 수준에서 타협이 불가피하였다. 한국리서치의 마스터샘플에서 51%를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무작위추출을 통해 구축한 패널 역시 참여의사가 높은 응답자만 추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참여의사가 높은 응답자만 유지됨으로써 발생하는 패널 유지과정에서의 대표성 문제 역시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프라이스와 잘러는 패널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응하는 층과 이탈하는 층 간에 정치적 관심도나 투표참여율 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외 정치적 태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Price and Zaller 1993)

실제로 대선패널 6차 조사에서 대통령선거 투표여부를 질문한 결과 92.2%가 투표를 하였다고 응답하여 실제 투표율 62.9%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이나, 마스터샘플을 활용한 YTN-한국리서치의 대선 예측조사가 가장 정확한 예측치를 발표하였다는 점 등은 프라이스와 잘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패널로 유지되는 응답자의 패널피로효과나 정치적 각성효과 역시 근본적인 극복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패널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3,500명의 대규모 패널 구축 ■마스터샘플과의 병용 등은 장장 9개월에 걸친 6차례 조사의 최종 패널유지율을 60%로 유지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패널피로효과 등 패널오염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 제도 ■자동화된 전화조사시스템 ■면접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도 일정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된다.

정해진 시간과 비용으로는 시도할 수 있는 노력에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패널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요원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번 대선패널조사를 통해 시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그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후 분석을 통해 방법론적 개선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8〉 응답자 특성별 패널유지율

(단위 : %)

조사차수	1차 조사	6차 조사	패널유지율
	3,503	2,111	60.3
성별			
남자	1,725	1,082	62.7
여자	1,778	1,029	57.9
연령			
19~29세	760	416	54.7
30~39세	820	531	64.8
40~49세	792	511	64.5
50~59세	544	327	60.1
60세 이상	587	326	55.5
학력			
중졸이하	441	179	40.6
고졸	1,100	661	60.1
대재이상	1,962	1,271	64.8
직업			
화이트칼라	967	624	64.5
블루칼라	493	265	53.8
자영업	685	435	63.5
주부	899	542	60.3
학생	243	123	50.6
무직/기타/무응답	216	122	56.5
소득			
100만원 미만	320	141	44.1
100~199만원	458	254	55.5
200~299만원	773	481	62.2
300~399만원	778	495	63.6
400만원 이상	1,088	711	65.3
모름/무응답	86	29	33.7

조사차수	1차 조사	6차 조사	패널유지율
권역			
서울	750	463	61.7
인천/경기	936	581	62.1
대전/충청	358	209	58.4
광주/전라	378	211	55.8
대구/경북	373	223	59.8
부산/울산/경남	568	344	60.6
제주/강원	140	80	57.1

응답자 특성별로 패널 유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패널유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패널유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패널유지율이 높은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패널유지율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루즈벨트와 카톤이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패널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한 성 · 학력 · 소득 · 연령 등의 변수가 이번 대선패널조사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Looseveldt & Carton 1997).

동시에 이번 대선패널조사의 패널유지율은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대와 학생층에서 패널유지율이 낮은 것은 과거 연구결과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일수록 패널손실이 증가한다는 가설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이며, 지역별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특별히 패널유지율이 낮게 나타난 결과 역시 기존의 연구결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선에 대한 관심도나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패널유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하겠다. 실제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와 학생층은 대선이나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패널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느끼지 못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범여권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대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이외에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도 역시 패널유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패널조사를 기획하는 과정에 최초 패널의 구성비를 조정함으로써 최종 패널의 응답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